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욥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데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 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 기대와는 달리 욥을 위로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신앙을 앞세워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욥기에 등장하지 않던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이 엘리후는 32장부터 시작해서 37징에 이르기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후은 욥의 세 친구보다는 나이도 어리고 인생 경험도 적기 때문에 그 동안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기만 하였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엘리후가 말하는 중심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35:6-7 말씀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우리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 달라거나 아니면 그 반대에서 우리들이 하는 선한 행실들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 보면 우리들의 말과 행실이,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께 무슨 영향일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인생들은 이미 절대적으로 타락하였고 완전히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범죄를 더하고 악행을 가득 채운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으며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선하시며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우리들의 의가 무엇을 더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더욱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더욱 악을 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의를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멈추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당연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말씀의 한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악한 행실이나 선한 행실이 더해진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이 없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사실 완벽이라는 말로 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행실로도 하나님의 완벽하심이나 완전하심을 훼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무한대 더하기 1도 무한대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반대로 무한대에서 1을 빼도 역시 무한대라는 수를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태평양 바닷가에 물을 한 컵 더 채우거나 한 양동이를 더 채워도 태평양 바다의 물은 변함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다고 하여도 우리의 악한 행실이나 선한 행실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에게는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정직함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요구한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기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성도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들이 뉴스 미디어에 오르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초창기에는 비록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은 받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걱정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혹시라도 기독교인들이 연관되어 있지는 않은지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착한 행실이나 높은 도덕성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악한 행실이나 범죄를 보고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도 포함되겠지만 진정한 착한 행실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곳을 몰라 헤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착한 행실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때를 얻

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